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NOVEMBER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5

### Harriman State Park 가을 산행



10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쾌청한 날씨에 바람도 잔잔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였다. 함께 하기로 예정했던 몇 회원이 부득이 참석 못하여 단출하게 7명이 9시에 PIP 주차장에서 두 대에 나누어 타고 Trailhead로 향하였다.

Seven Lake Drive 인근 호숫가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호수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막상 산행을 시작하며 산길로 들어서니 단풍은 별로 없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 조심스레 Trail Mark를 따라 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운 계절이 되었다. 능선길에 올라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고 라면/오뎅을 끓여 준비해온 점심을 나누어 먹고 쉬엄쉬엄 능선길을 오르내리다가 하산길에 들어서 주차장으로 되

돌아오니 오후 4시, 산행한 거리는 4.5마일이었다.

오늘 모처럼 합류한 자연과학대(수학, 85년 입학) 이창길 동문이 골든클럽에 입회, 이준희(음대 95년 입학) 회원에 이어 둘째 막내가 되기로 동의하였다. 송학린 선배 제안으로 Rhodes North Tavern에서 환영을 겸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산행 참가: 송학린/김선에 조달훈/조승자 홍종만/홍예경 이창길

## Golden Club 11월 골프대회 안내

아래와 같이 올해 마지막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tgun 을 위하여 40명을 예약하였습니다. 가능하시면 금주중으로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시에는 원하는 Tee Box를 함께 알려주세요

골프코스: Berkshire Valley Golf Course

28 Cozy Lake Rd, Oak Ridge, NJ 07438

날짜: 11월 4일 (목)

Teeoff: 12 pm (shotgun) - 11시 까지 도착바랍니다.

회비: \$100

디너와 시상식은 경기가 끝난후에 아래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Flaming Grill & Supreme Buff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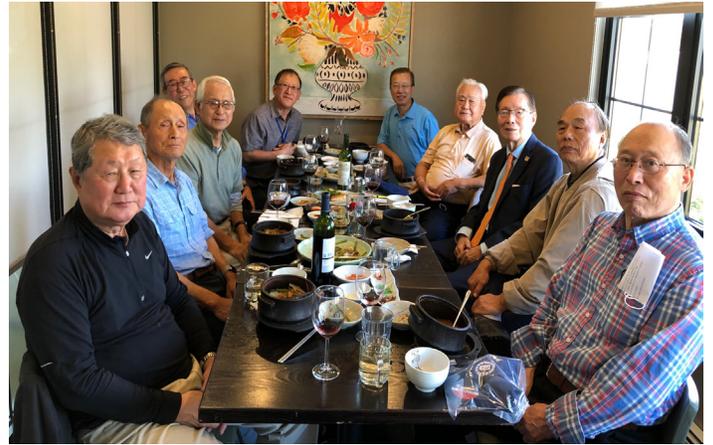
92 Route 23 N. #D1 Riverdale, NJ 07457 Tel: 862-377-0598

팔팍 한남마켓에서 카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정필 (201-965-7759)



## 정해민 고문 초청 편집위원/임원 간담회



10월 15일 오전 10시반부터 1시까지 정해민 고문의 초청으로 뉴저지 잉글우드클럽의 마당 식당 별실에서 뉴스레터 편집위원과 동창회 임원이 함께 모여 동창회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친교의 자리를 가졌다. 모인 동문들은 뉴스레터의 발전, 장학금 수여 대상을 동문가족으로 넓히는 방안, 동창회에 보다 젊은 세대에게 문호를 넓히는 방법등에 대하여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윤현남 홍종만 오순문 성기로 금영천 김정필 임호순 정해민 이진구 조상근)

## Florida Golf Trip 안내

Florida 동문회의 초청과 후원으로 2년 전 Florida 에서 1주일간 동계 합숙 훈련을 실시하며 회원간 유대강화와 즐거운 추억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취지와 계획으로 Florida Golf Trip을 추진하면서 참가 희망 회원과 규모를 파악하여 적절한 숙소와 골프장을 물색하고자 합니다. 첨부 자료와 같이 소요비용은 실비 부담 개념이며, 6박 5일 골프행사에 일인당 숙식 \$600, 골프장 \$30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프여행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회원들이 파악되는데로 Group Katalk 방을 개설하여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형편상 일부 기간만 참여하거나 별도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등에 대하여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첨부하는 2년전 경비정산 내역을 참고하시고 혹시 의논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골프여행 지역; Fort Lauderdale-Palm Beach area

일정; 2020년 1/23(일)~29일(토)

집결공항; West Palm Beach Airport(PBI), 1/23 1시 이전 도착  
1/29 출발, 12시 이후

참가 회비; \$900 (숙식 600, 골프 300 예상)

숙식; Air BNB 5 room에 10명이 체류하며, 총인원에 따라 2-3 house rent

식사; 아침식사는 kitchen에서 self-service

저녁식사는 인근 식당을 주로 이용

참가 조건; Covid 19 Vaccine 2차 접종 및 Booster 접종 완료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뉴욕동창회 추계골프대회



서울대학교 추계골프대회가 10월 13일 (수) 오전 11시에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동문 및 guest 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그동안의 코비드 사태로 움추렸던 기간들을 훌쩍 떨쳐내듯이 울들어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석한 이날의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메달리스트	천병수 (79타)
챔피언	손경택
1등	손대홍
2등	김영만 / 장정수
3등	최병우 / 오용호
Close pin	한태진 / 오순문 / 오유섭 / 김두현
Longest drive	홍예경
Booby	윤선구
단과대경연	공과대 (천병수 / 최병우 / 김정필)

이날 대회를 위하여 후원하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기로 이사장 \$500  
 이대영 전회장 \$200  
 신용남 전미주동창회장 상품10점  
 이진구 전회장 로고 골프볼

## 뉴욕동창회 무연고 한인 장례지원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가 연고자를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던 한인의 장례비용을 지원해 한인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서울대 뉴욕동창회는 15일 임원회의에서 정해민 상임고문의 제안으로 지난달 30일 사망한 무연고자 장영원씨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2000달러를 중앙장의사에 전달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장영원씨는 지난달 30일 플러싱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했으나 연고자를 찾지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서울대 뉴욕동창회의 도움으로 10월 15일에 장례를 치르고 프로스펙트 묘지에 안장됐다. 장례예식은 신우철 목사의 집례로 이숙자 목사와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가 함께했다.

금영천 서울대 뉴욕동창회장은 “정례적인 동창들간의 친목 행사·연례 행사·모교 돕기·모교 출신 유학생 장학금 지원 외에 이번 한인 무연고자 장례를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움을 제안한 정해민 상임고문은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지나쳐 버리기 쉽지만 이번 일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손대홍 회원의 새집 단장

있고, 적절한 picnic table을 골든클럽이 기증하여 가끔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정성 들여 꾸미는 새집에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란다.

새집 주소: 1626 Maple St, Fort Lee, NJ 07024

손대홍/남종현 회원 부부가 지난봄 넓은 땅에 세워진 허름한 고옥을 사들여 8월 하순부터 7주간에 걸쳐 기둥과 구조물만 유지하는 대대적인 주택 개조 작업을 진행, 다음 주 수요일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다. 부근 작고 후 노인 할머니 혼자 살아서 밖은 온통 잡초가 무성하고 집안은 망가지고 고장 난 채 방치된 ghost house를 팔 건어붙이고 두 달 여 만에 반듯한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가전 기구와 소모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인부를 사서 일을 하여 대부분 견적 가격의 30% 수준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 반가운 것은 널찍하게 정리된 뜰에서 골든클럽 전체는 힘들겠지만, 내년 봄 여성회원 Pizza Picnic을 하기로 암묵 합의를 보



## 제42대 뉴욕지역 동창회가 출범하기까지

상임고문 정해민(법대 55)

“모든 것이 합력(合力)하여 선(善)을 이룬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혼자)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하며 이것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어서 비로소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합(煉合)하려면,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순종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질병과 고통, 환난과 어둠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홀로 있는 사람보다는 두 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삼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동창회가 우리 속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형제, 가족 더 나아가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도 서로 베풀고 나눔으로, 공헌(Contribution)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확고한 동창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상근 회장의 제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차에 걸친 차기회장 공모를 공고하였으나 2차년도 임기 3개월 전까지도 지원자가 없었다. 그러나 ‘궁척통(窮則通)이라는 말이 있듯이 번개처럼 머리에 스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15개 단과대학 동창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약대 동창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동창회를 희생(回生)시키는 데 최선이라는 생각이었다.

바로 약대 동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그들 중에서도 금영천 동문이 적임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추천해 오므로써, 당시 약대회장(성기호)에게 추천을 요청한 결과, 약대 동창회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금영천 회장을 정식으로 추천해 오게 된 것이다. 이제 뉴욕지역동창회는 본 궤도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길게는 4년(두 분이 연임할 경우, 한 분만 연임하면 3년) 짧게는 2년은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고 그 실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생각한다.

동문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동창회와 골든클럽은 시너지 효과로 나란히 무궁한 발전을 확신하는 바이다.

## 부추의 성질과 효능

(Allium tuberosum - garlic chives, Chinese leek)

금영천 (약대 72)



부추는 지역에 따라 부채, 부초, 솔, 정구지 또는 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식용으로 하고 있다.

동의보감의 채부(菜部)에 부추(구채, 韭菜)를 수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뜨겁다고도 한다). 맛은 맵고 약간 시며 독이 없다. 심(心)으로 들어간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위열(胃熱)을 없애며, 허약한 것을 보(補)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흉비(胸痺)를 없앤다.

한의학에서 부르는 명칭은 구(韭)이다. 한번 심으면 한해 서너 번을 먹고도 봄이 지나면 또 올라와 몇 년을 가는, 즉 오래 산다고(구생, 久生)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 부추의 효능을 들어 초종유(草鍾乳, 불로장생하는 종유석의 효능을 닮은 풀), 기양초(起陽草, 양기를 일어나게 하는 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문적으로 보면 부추의 씨를 구자(韭子)라고 하고 이의 기원식물을 백합과(Liliaceae)에 속하는 부추(*Allium tuberosum* Rottler)로 하고 있어 *Allium tuberosum* 을 기원식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인다.

부추는 마늘과 같은 속(屬)에 속하는 식물로서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황 화합물로서 마늘에도 함유된 allylmethyl trisulfide와 diallyl disulfide 등이 함유하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로서는 캄페롤(kaempferol) 및 이의 배당체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 et al., Food Res Int. 2017; 102: 681-689).

또 부추는 가슴속의 어혈(瘀血)과 체기(滯氣)를 없앨 수 있고 간기(肝氣)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채소 가운데 이것이 가장 따뜻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늘 먹어야 하지만, 특히 맵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양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하며, 먹을 때는 즙을 짜 먹거나 김치를 담가 먹는데, 모두 좋다고 기술했고 있다.

## Fall Foliage, Adirondack (아디론덱의 가을 단풍 群葉)



New York State의 거대한 주립 공원인 '아디론덱'의 가을 단풍은 광활함과 경이로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Maine State의 붉게 물드는 단풍의 경관은 세련미이라 할까 너무나 잘 알려진 '아이콘'으로 자랑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지만 '아디론덱'의 가을 단풍은 야생성과 풍요로움을 주는 '단풍의 명가(名家)'라 생각되어 하얀 캔버스를 형형각색으로 물들여 보았다.

그림: 김광현  
(2016, 18"x24", Oil on Canvas)

소장: 손경택 전 골든클럽 회장

### 勳이異見

조달훈 (사대 66)

흔히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행하는 젊은이를 가리켜 “그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콩깍지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결론은 앞 또는 지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식이 젊은이로 하여금 실수하거나 나쁜 길로 가도록 했다는 뜻, 또 다른 말로는 ‘아는 것이 병’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1. 천지현황(天地玄黃)을 배우고 뜻을 알았을 때는 자랑스러웠고, 훗날 천자문은 이러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무학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아하 똑똑한 천재가 저자이고 훌륭한 일, 자랑스런 일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제 생각하니 “아 엉터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무학자를 위해서라면 1 2 3 4(一二三四), 부모형제(父母兄弟), 상하좌우(上下左右) 등 쉬운 것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철이든 어른이 되어도 긴가민가 하는 ‘하늘은 겹다.’는 철학적인 것을 서너 살 배기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2.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것을 배웠고 당연히 충효를 가르치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말이 옳은가?”입니다. 군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 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없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만 강조한다? 선생이 가르친 것이 어머니가 가르친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가? 저의 좁은 생각엔 어머니 은혜의 무게는 군사부 모두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무겁습니다.

3. 음양오행(陰陽五行), 빛과 어둠, 남과 여, 좌우 등등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과 여의 조화만큼 아름다운 것도 이보다 더한 즐거움도 없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 양분법입니다. 남녀를 심하게 구별하는 후진국가가 있는가 하면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완화되다 보니 LGBTQIA+같은 구별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양의 흰색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모인 것이고, 음의 검은 색은 그 많은 파장의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 (99.99%)는 이 두 극단의 사이에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둠이 없으면 어찌 밝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만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고 했다면 빛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제안]** ‘스크램블8’이라는 이름의 골프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남녀실력 상관없이 8명, 골프모임 때는 매번 남녀구별없이 임의로 네 팀을 만들어 팀 대항 스크램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조달훈 (718)359-62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노익장 (老益壯)

윤현남 (공대64)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90이 넘어서도 활발하게 사는 노인들의 소식을 몇 가지 읽었다. 8월에는 95살의 가수 Tony Bennet이 무대에서 넘어서 다칠 우려가 있어 공연을 취소하고 은퇴한다는 것이었고, 10월 7일에는 Jimmy Carter 대통령이 97세 생신을 맞아 Bill Clinton 대통령 및 여러 명사들이 방문 축하를 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92세인 Clint Eastwood가 주연, 감독, 제작한 “Cry Macho”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는 기사였다. 노익장(老益壯)이란 단어가 절로 떠올랐다. 글자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기백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위낙은 중국 후한의 62세의 마원이란 장군이 전쟁에 출정 시켜 달라며 쓴 말이라 한다.

마원은 우리 골든클럽 회원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弱冠이라 하겠다. 우리 회원들이 흥미있어 할 것 같아 90이 넘은 노익장들 몇 분을 소개한다. 이분들의 특성, 사는 자세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잠깐이나마 소개하려 한다.

### Tony Bennet



1926생의 95세가 넘은 70여년을 전통적 팝, 뮤지컬, 재즈 곡을 노래한, 목소리가 유난히 매력적인 가수이다. 회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

을 때부터 좋아하셨을 것 같다.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고 그의 hit,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들으며 미국은 어떤 곳인가 하고 동경하던 기억이 난다. 50년 대에는 인기 최고의 가수였었는데 60대 중반부터는 Beatles 등 록앤 롤 음악의 인기가 상승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부진했다. 새로운 세대의 기호에 맞게끔 꾸준히 노력하여 80년대에는 젊은 관객들에게 재발견되어 소위 ‘국민가수’로 부활하였다.

두번째 커리어에서는 그는 젊은 가수들과 협업을 많이 함으로서 젊은 관객들에게 접근했다. 그 협업 중에 마지막까지 가장 의미가 큰 것은 본인보다 60세나 젊은 Lady Gaga와의 협업이었다. 2016년에 PBS 특집으로 90세 축하 공연으로 duet concert를 방영하였고 그 후 매년 여러 차례 합동 공연을 하고 음반도 같이 두 개를 발매하였다. 사실 2016부터는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 그는 다른 활동은 못하였는데 본인이 즐기고, 소명으로 느끼는 음악 공연은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한 것은 Lady Gaga의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Tony Bennet의 공연 영상을 보면 그가 관중에게 노래를 할 때면 즐겁고, 행복하고, 관중을 행복하게 함에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는지가 보인다. 이것이 노령과 치매를 극복하게끔 한 비결인 것 같다.

### Jimmy Carter

1924년 출생해 금년 97세인 Jimmy Carter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976년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처음이다. 첫 인상은 진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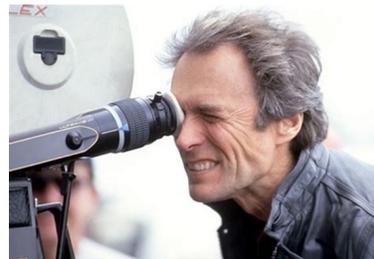


고, 겸손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구나였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 시에는 재수가 참 없었다. 4년 내내 경제는 stagflation (고 인플레이션과 저 성장), 이란 인질 사건, 석유 crisis 등으로 무슨 업적은 시작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렸다. 역사가들의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의 평판은 대통령 임기 후 꾸준히 상승하며 현재로는 가장 존경받는 전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 Plains, GA로 귀향 후 “Habitat for Humanity”라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자선단체의 주축일 뿐만 아니라 부인 로자린과 함께 직접 목공일을 현재까지 해왔다. 또한 세계 어디에서나 쟁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정해 참여하기 위기를 축소하는데 힘써왔다. 이 공헌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대통령 후 40년 넘게 한 헌신적인 자선과 봉사가 그의 인간으로의 표현인 것 같다.

### Clint Eastwood

Clint Eastwood는 지금 91살이 되어도 내게는 항상 cool anti-hero이다. 고1 때 “Rawhide”라는 드라마 속의 신참 카우보이로, 또 대학 다닐 때는 스파게티 서부영화 속의 어깨에 담요 하나 걸치고, cigar를 빼딱하게 물고 있는 이름도 없는 주인공, 70년대의 “Go ahead. Make my day.”를 이 사이로 내어 뺀 Di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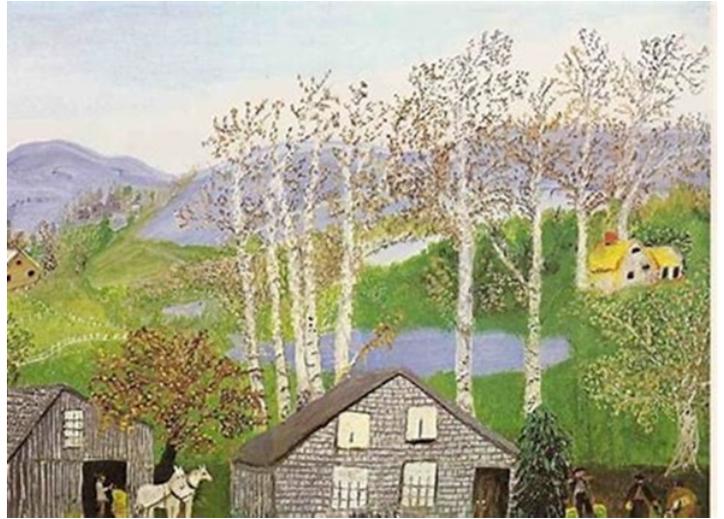
Harry. 언제까지나 자기 방식으로만 사는 주인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카데미 상을 4개나 받은 명감독, 명제작자가 되었다 (Unforgiven(1992), Million Dollar Baby(2004)). 처음 얘기한 대로 90살에 직접 연기하고 감독한 “Cry Macho”를 만들었다. 감탄할 뿐이다. 서부 사람들의 독립심과 무슨 일이고 쉽게 도전해버리는 기백이 Clint Eastwood의 늙지 않는 비결이라 한다.

**Prof. John B. Goodenough**



99세로 현직 University of Texas의 화학과 교수인 Dr. Goodenough가 2019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과학분야의 노벨수상자 중 가장 노령이다. 리치움 배터리의 기술을 확립한 공헌이다. 젊었을 때에는 컴퓨터 메모리 재료 기술을 확립했다 한다. Yale 학사, Chicago 박사, Oxford 교수 (60살까지) 그리고 UT Austin 교수로 무려 40년이다. 현재 연구는 끝

임없이 충전할 수 있는 유리 배터리 기술이다. 2020년에 이 기술의 특허를 취득했다. 박사 받고 독립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면 남들 보다 앞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고 애를 쓴다. 이 양반은 무려 75년을 그런 개척자의 기백으로 살고 있다. 엄청나게 어린아이 같은 optimism, 자신 그리고 끈기가 있는 것 같다.



White birches (1961 when 100 yrs old)

**Grandma Moses (Anna Mary Robertson Moses 1860 - 1961)**

Grandma Moses는 60년 전에 별세했지만 신기할 정도로 특이한 삶이라 소개한다. 모두 잘 알듯이 이분은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소천할 때까지 무려 2000점 이상의 그림을 남겼다. 그는 뉴욕주의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태어나 12살부터 남의 집의 하녀로 일하다가, 27세에 가난한 농사꾼에 시집가서 농장 일하며 틈틈히 뜨개질, Quilt를 만들어 가게에 보냈다. 그림 공부는 전혀 못 받았고 하녀 시절에 주인이 가끔 종이를 주면 그림 그려보는 것이 다였다. 78세에 손의 관절염이 심해져 뜨개질을 못하게 되자 주위에서 그림을 그려 팔라고 해서 그림을 시작했다. 동네 약방에 걸려있는 그림을 지나가던 뉴욕의 화랑 주인이 보고 10점을 사서 자기 화랑에 전시한 것이 그의 커리어의 시작이 되었다. 첫 번 판 그림은 한 점에 \$3씩 팔았는데 아래의 그림은 120만 불에 경매되었다. 101세까지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Grandma Moses는 미국 사람들의 단순한 optimism과 현실성의 표징이라 하겠다. 어린 시절의 그림 그리며 느낀 즐거움을 팔순이 다 되어서 기억하고 불꽃을 다시 살려낸 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 같다.



Sugaring Off (1943)

**김형석 교수**

한국의 90세 이상의 현업에 종사하는 분을 조사해보니 오직 코미디 안, MC, 가수인 송해씨만 찾았다. 여기에 소개하기를 멈칫하고 있다가 신문에서 김형석 교수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현재 101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철학자이고 지금도 매년 저서를 내는 노익장 중의 노익장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목소리가 조용하고, 미안하지만 얘기가 재미없어서 듣다 보면 잠드는 수면제라고 농담하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강연도 하고, 신문 방송에 대담도 하고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여 지금 사회와 국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어느 친 정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 이라고 저격했다. 이 비판에 대해 김교수는 “SNS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그래도 저격도 자정 작용이 일어나도록 놔둬야 한다.”라고 쿨하게 답했다.

아직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부 활동을 소화할 정도이다. 지팡이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공공 석상에서도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정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봉사, 낙천적, 좋아하는 일, 건강한 생활 pattern을 한 몸으로 대표하는 것 같다.

**회원 명단 (111명 / 2021-10-20)**

강교속	김문경	민준기	이정자	이대영	조승자	한영수
강에드	김문언	박기환	신응남	이범선	정해민	한용오
강영선	김병순	박준구/	안용희	이상무	조상근	한태진
계동휘	김상만	최속희	양인회	이수호	주상선	허용웅
고애자	김승호	박희병	오 성	이용대	주재양	홍사만
곽상준	김영택	배상규	오순문	이전구	진봉일	홍정표
곽선섭	김영만	성기로	오용호	이종대	천병수/	홍지복
곽승용	김우영	손갑수	오유섭	이종석	천종화	홍종만/
구달희	김익성	손경택	오인석	이준행	최구진	홍예경
권정덕/	김인형	손대홍/	우규환	이준희	최병우	
홍선경	김정필	남종현	유무영	이행순	최수용	
권영대	김종울	손옥화	윤선구	이흥빈	최순채	
권태전	김창수	송근숙	윤종숙	임도혁	최준희	
금영천	김태일	송웅길/	윤현남	임호순	최진영	
김광수	김한중	송현자	이강홍	정도현	최철용	
김광현	김현중	송학린	이 준	정수일	최학주	
김동건	노용면	신진식/	이대연	조달훈/	추재욱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90명 / \$9,000 / 2021-10-20)**

강에드	김문언	최속희	이정자	이상무	조상근	홍선경
강교속	김병순	박기환	송근숙	이수호	주상선	홍지복
강영선	김상만	박희병	양인회	이용대	주재양	홍종만
계동휘	김승호	배상규	오순문	이전구	진봉일	홍예경
고애자	김영만	성기로	오용호	이종대	천병수	홍정표
곽상준	김우영	손갑수	오유섭	이종석	천종화	
곽선섭	김익성	손경택	오인석	이 준	최병우	
곽승용	김정필	손대홍/	우규환	이행순	최수용	
권정덕	김종울	남종현	유무영	이흥빈	최순채	
권태전	김태일	손옥화	윤선구	임도혁	최준희	
금영천	김한중	송웅길	윤종숙	임호순	최철용	
김광수	김현중	송현자	윤현남	정수일	한영수	
김광현	노용면	송학린	이강홍	정해민	한용오	
김동건	민준기	신진식/	이대연	조달훈	한태진	
김문경	박준구/	이전구	이대영	조승자	허용웅	

\* 2022년 회비 납부 (1명 \$200 송학린 이대영)

**2021년 후원금 기부 명단 (32명 / \$14,670 / 2021-10-20)**

곽선섭 100	김한중 300	오유섭 500	이흥빈 100
곽승용 300	노용면 4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권정덕 200	성기로 300	윤선구 200	정준영 100
금영천 300	손경택 1,000	윤현남 500	정해민 1,170
김광현 200	송학린 1,100	이강홍 200	최수용 1000
김승호 700	신진식 300	이전구 1,000	최철용 300
김영만 200	양인회 200	이준행 2,000	한태진 500
김종울 200	오용호 100	이행순 200	홍종만 500

\* 2022년 후원금 (1명 송학린 1,0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6명 / \$1,200 / 2021-10-20)**

남종현	금영천	김승호	김한중	윤종숙	이상무
-----	-----	-----	-----	-----	-----

**2021년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1-10-20)**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10-30)**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참가
5월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kkill 40명참가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 Philip J. Rottela 44명 참석
	6월 17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4명 참석
7월	7월 15일(목)	Golf Outing -Pelham Bay 43명참석
8월	8월 12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Club 33명 참석
	8월 19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석
9월	9월 16일(목)	Golf Outing -Clearview Golf 42명 참석
	9월 25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정기총회및 Picnic 130명 참석
10월	10월 13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Sunset Valley, 50명 참석
	10월 21(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7명 참석)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Berkshire Valley
1월	1월23일-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3월	3월26일(토)	신년교례회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계동휘 (치대67)
- 김동건 (사대67)
- 민준기 (공대59)
- 박희병 (치대63)
- 송근숙 (간호66)
- 신정택 (약대52)
- 오유섭 (의대58)
- 이 준 (간호대)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